



에디터 체제 ‘이름 바꾸기’론 안된다

지난 21일자로 시행된 회사 기구 개편과 관련, 화두로 떠오른 ‘에디터 시스템’이 단순히 이름 바꾸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기구 개편 직후 각부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뉴스, 비주얼 담당으로 5분화한 에디터 제도가 기존 부국장 체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차이가 와닿지 않는다는 견해가 상당수 표출됐다.

한 대의원은 “회사는 에디터 제도가 기존 부국장 체제보다 강력한 직할 체제로 운영되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름값을 해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디터제의 취지가 추상적이라 자칫 이름만 바꾼 개편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조합원은 “에디터라면 여러 부서를 동시에 관할하고 부서간 공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이슈별로도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부국장을 영어 명칭으로 바꾼 것이라면 차라리 편집국장도 ‘에디터인 지프(editor in chief)’로 바꾸라는 목소리도 냈다.

즉 기존 시스템에 이름만 바꾼다고

에디터 제도가 성공하리라 보는 것은 경영진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경고의 목소리인 셈이다.

이에 한 임원은 “에디터에 고유하게 명문화된 업무분장 내용은 없다. 에디터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영진은 에디터제의 역할이 ‘직급’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13개 취재본부를 관할하게 된 사회 담당 에디터에 대해선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 취재본부가 전국부장 산하에서 사회 에디터 산하로 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기존 전국부와 취재본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부터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각 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각 본부 사원들이 이중 지휘체제에 놓인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130여 전국 본부 사원들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단 한줄에 그친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무성의를 성토했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실제 각 지방 취재본부는 조직도상 전국부와 ‘동열’에 놓였는데 여전히 전국부의 일방적 지휘체제가 유효하다며 어리둥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도대체 누구 지휘를 받으란 것인지 헷갈린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신설된 비주얼 에디터의 경우 사진, 영상, 그래픽 콘텐츠를 총괄 관리할 필요성에 적절히 대응한 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이 역시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신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지적이다. ‘대부소팀제’를 근간으로 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철학없이 진행된 개편이다’, ‘매번 바뀌기만 하고 혼란만 가중한다’는 불만과 함께 팀제를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팀장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대부서를 만들어 기동성만 떨어

어트려선 곤란하다며 기존 업무환경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부 독립적인 영역을 쌓아놓은 팀들을 무차별 통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뉴미디어국 신설에 대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방법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아울러 콘텐츠를 포장,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의 부재가 문제라는 목소리와 함께 대외업무기능을 높여 콘텐츠에 대한 홍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쓰촨 지진피해 현장을 취재하다 단잠이 들었던 연합뉴스 취재진이 한밤중 여진으로 급히 숙소를 벗어나 광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관련글 4면)

10년 일하고 한달도 못쉬나?

노조, 안식연월제 조사 추진

기자들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가는데 가운데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자는 안식연월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안식년제가 도입돼있으나 일벌레처럼 일만 해온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식월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도 최근 3차례의 집행부 회의에서 재충전 안식연월제를 논의하고 타사 또는 타기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안식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하반기에 재충전 도입을 위한 조합원과 사우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언론사에서 안식월제를 도입한 곳은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이다.

한겨레는 재충전 기회마련을 위해 안식월제를 도입했는데 매년 평균 10~2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의 안식월 제도는 특이하게 10년차때 30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퇴직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간부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

올해 누적 사용 대상 인원은 245명으로 지금까지 사용자는 절반가량.

노조측은 노·사 양측이 공감할 수 있어 강제적 실행방법을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13년차의 경우 30일의 안식월을 주고 20년차는 10일 휴가를, 53세때 다시 30일을 주는 등 지난해부터 안식월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젊은 기자들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선일보도 인사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언론사보다 기업 문화가 발전한 기업체에서는 벌써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대기업 중 드물게 안식월 제도인 ‘리프레시 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입사 10년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1~3개월짜리 휴가를 준다.

건설사업관리(CM) 회사인 한미파슨스는 직원으로 10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2개월간의 유급 안식휴가를 쓰는 제도를 도입했다. CEO급 간부들에게 오히려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리더십센터는 7년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1년간의 안식년을 주고, 휴가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옥션은 5년마다 한 번씩 직원들에게 1개월 휴가를 준다.

한 노조원은 “비슷한 연봉에서 출발하거나 더 낮은 연봉에서 출발한 기업체 등이 오히려 언론사들보다 복지 대책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면서 “10년 차 이하의 젊은 연차에서 해외 여행 등 욕구가 많은 만큼 해당 연차를 더 낮춰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뒷북을 쳤습니다”

지난 23일 사원 등에 대한 정기 인사발령을 끝으로 3차에 걸친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 났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지난 2월 말부터 사내 일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해 거의 석 달을 끌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 인사를 앞두고도 그런 적이 없진 않았지만 이번엔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인과 맞물려 각종 설(說)이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돌던 괴소문이 사내로 유입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조직개편 시기가 늦어지면서 누구는 어째서 안된다, 누가 어디로 간다 등등의 소문이 사내에서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 전달했고, 하루 빨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날짜만이라도 빨리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뒤숭숭한 채로 계속 흘러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맘놓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노조는 한 주, 두 주 시간이 흘러가는 마당에 초조함을 안고 여러 루트로 취합한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경영진에 전달했습니다. 1차로 문서를 보냈고 경영진을 접할 때마다 구두 건의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역 취재본부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상당 부분 노조에서 취합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조합원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위야 어찌됐든 조합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담보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그랬던 것처럼 노조도 적절한 타임을 실기(失期)한 탓에 비공식 루트로 의

견을 모으는데만 정신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소신껏 조합원과 사우들의 ‘총의’를 물었어야 하는데도 조급증에 사로잡혀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대의원들에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견해를 물어보자 ‘뒷북을 치지말라’는 준엄한 경고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다며 꾸중해주신 대의원들의 질책을 더 깊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회사는 큰 풍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고를 넘는다면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나갈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시점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의 중대 현안을 앞두고 결단코 조합원과 사우 여러분의 총의를 받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우들의 총의를 등에 업고 포박포박 조합의 길을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국장 임면동의 투표와 관련하여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작국장 내정자들에게 보낸 질문과 답변이 조합원들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 환경에서 제작국장(편집.보도국장) 선임 절차는 임면동의제, 직선제, 복수추천제, 중간평가제 등 다양한 방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제작국장 임면동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보한보 전진해가는 제21대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사우들의 더 많은 질책을 기다리겠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연합뉴스

“금연구역 흡연자 벌금” 강경 대응해야

“명백한 금연구역에서 임산부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법 여부를 떠나 동료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연합뉴스 건물이 금연 건물로 지정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다.

몇년 전과 비교하면 사무실내 흡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내 담배연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건물 내 설치된 흡연실은 4층 한 곳. 여기에 명백히 불법이지만 ‘교육지책’으로 층간 창가마다 흡연 표지를 붙여놓고 흡연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금연 구역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사내 흡연은 ‘자유롭게’ 이뤄진다.

각층 엘리베이터 앞과 회의실 등에는 항상 담배를 피우는 사원들이 모여 있고 그나마 지켜지던 사무실내 금연도 사람이 적은 시간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 평일 주간에만 유효한 ‘반쪽 금연 건물’이 되곤 한다.

4층 편집실에 있는 한 사원은 “같은 층에 흡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며 “드러내놓고 싶은 기색을 해도 그냥 무시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흡연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도 많다.

흡연실 인근에 있는 있는 한 조합원은 “흡연실이나 그리고 흡연실처럼 이용되고 있는 회의실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사람이 많아 하루에도 몇번씩 앉은 자리에서 담배 연기를 맡게 된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또다른 조합원도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을 지날 때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숨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해째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흡연자들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원에게 엄격하게 벌금을 매기는 극도의 강경책이나 흡연실을 야외에 설치하는 식의 회유책을 써서라도 사내 금연을 철저히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자신의 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는 혐오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하고 그 전에 최소한의 금연구역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언론노조 산별교섭 ‘1라운드’

1.2차 교섭 진행... 사측 ‘무조건 피하기’ 일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산별교섭의 깃발을 올렸다.

산별교섭이란 말 그대로 단위기업이 아니라 산별노조가 사용자 집단과 임.단협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일반화된 교섭방식이고 국내에선 금속, 보건 의료, 공공노조 등이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노조도 산별로 전환한지 올해 8년째다. 그동안엔 ‘무늬만 산별’이란 자조 속에 살아왔다.

올해 언론노조가 산별교섭을 최대 무기로 장착한 이유는 미디어시장 재편기에 이명박 정권의 언론공공성 파괴 정책에 맞서 언론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신문법과

방송법 제개정, MBC와 KBS2 민영화 등 언론을 시장화하는 MB 미디어 정책에 맞서 언론 공공성을 수호하는 전선을 만드는데 산별교섭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노조 산별교섭은 두 차례 진행됐다. 지난 14일과 21일 산별중앙교섭 노사 상견례와 2차 교섭이 열렸다.

노측은 언론노조 집행부와 각사 노조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나 사측은 두 차례 교섭에서 6-8개사 대표만 나왔다.

연합 사측도 언론노조의 참석 공문을 받았으나 조직개편 시기 등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언론노조는

향후 교섭에 불응하는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해놓은 상태다. 연합 노조는 사측이 중앙교섭과 이후 지역별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산별공동협약을 만들어 중앙교섭에 임하고 있다. 산별공동협약은 산별조합 활동보장,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보호, 임금, 언론공공성 협약, 신문.방송의 공정보도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산별교섭이 타결되면 각 단위기업에는 산별협약과 사업장별 임단협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내용이 상충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진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별교섭이 첫 해부터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별 원년인 올해 하나의 성과물이라도 따낸다면 내년엔 더 강한 산별노조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협축구 아쉬운 8강... 뜨거운 연합의 함성



기협축구출전후기 **골은 11명의 '공동 특종'**

류지복 정치부

“어떻게됐어요?”
 “졌어”
 “잘됐네”
 “.....”

지난 24일 기협축구대회 8강전에서 머니투데이를 만나 1:0으로 분패한 이후 집사람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연합뉴스 축구단은 가정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그도 그럴 만 한 것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돌아오나 싶더니 가족들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이 연습이랍시고, 시합이랍시고 집을 비우고, 심한 경우 몸에 시퍼런 멍자국을 몇 개씩 달고 절뚝거리며 집에 들어오니 반가울 리가 없지요. 이번에도 저는 3주 동안 주말을 운동장에서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외롭다”는 투정까지 합니다.

물론 저는 “나는 오죽 힘들겠느냐”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연막전술입니다. 올해가 벌써 9번째 축구대회 참가지만 아직도 5월이 되면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협축구는 제 입장에서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우선 진한 동료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축구는 팀플레이입니다. 11명이 혼연일체가 돼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발을 맞춰 골을 넣었을 때의 기분은 공동취재로 특종을 건졌을 때의 그것과 흡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합에 나가면 저희는 모두 ‘열렬한 연합뉴스맨’으로 변합니다. 경기장에서 만큼은 회사

를 위해 말 그대로 ‘죽기살기로’ 땀니다. 축구는 더 이상 유희가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건 한판 승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평소 잘 알던 타사 선배와도 심한 말다툼을 하는 험악한 장면까지 가끔 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협축구를 선수들만의 행사 정도로 보는 것은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12번째 선수인 연합뉴스의 모든 가족과 어우러질 수 있는 한판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기협축구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응원단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려 했는데...

솔직히 8강전에서 진 후 어디 숨을 곳이 없나 하는 생각은 저만 가졌던게 아닐 겁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나마 그동안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면의 부족을 절감합니다. 김병만 감독은 ‘축구 달인’답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본인은 원치 않지만 앞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텃다는 게 선수단의 판단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술잔을 기울이며 선수단을 위로해준 옥철 노조위원장, 한승호 기협 연합뉴스지회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기서 사장을 비롯해서 틈틈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 임원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보냅니다.

29기 수습기자들은 누가 뭐래도 축구팀의 숨은 일등공신입니다. 사회부 수습을 막 끝내고 맞은 첫 연휴마저 축구장에 반납했을 정도입니다.

뜨거운 성원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장서 목 신 29기 수습기자들 '나도 한마디'

이연정 “연합축구단, 내년엔 기협축구계의 맨유로!!”
 나확진 “올해는 비록 불보이었지만, 언젠가 그라운드에 설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고유선 “2009년엔 응원우승 축구우승 더블우승 달성에 감!!”

김동규 “아쉬움과 뿌듯함이 남는 즐거웠던 2008년 연합 기협축구!”

최인영 “여전히 우승은 연합뉴스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배들 짱 멋져요~♡”

김보람 “올해 8강을 내년 우승의 밑거름으로!! 연합 화이팅~!”

김계연 “우승만큼 값진 8강입니다. 그래도 내년엔 우승!”

임형섭 “다들 열심히 뛰고 응원하는 모습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은지 “빈병부터 황동불상까지! 내년에도 알찬 응원으로 우승까지 go!!”

임기창 “연합 축구팀, 내년 기협축구 우승 자신감만땅” (종합)

박보람 “첫 여성멤버. 내년에는 득점까지~”

송진원 “내년엔 꼭 주전으로!!”

김지선 “축구공은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가면 연합뉴스 선배들 한자리에 모이겠네~”

이유미 “우승을 꿈꾸는 동안 행복했고 응원하면서 연합뉴스사람임을 느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김선호 “꿈★은 이루어진다 내년 유니폼엔 별★ 하나 달수 있길...”

최정인 “아쉬운 패배를 맛보았지만 선배, 동기들과 하나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축구 실력 및 응원 기량을 갈고 닦아 꼭 우승하기를~!!!”



최전선에서

“마지막을 선배와 함께 해 다행입니다”

“정 선배 느꼈죠 지금 뭘까요”
“아직 아냐 한 번만 더 흔들리면 튀자”

18일 새벽 광위안(廣元)시 서쪽 80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강진으로 숙소가 크게 휘청거리자 잠에서 깬 정주호 홍콩 특파원 선배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잠에서 깨어 상황 판단에 나섰다.

다행히 여진은 5분 내로 잠들었고 지진 울렁거림을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지난 5월 12일 석가탄신일에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진도 8의 대지진 취재는 직접 피해자 1천만 명 사망자 추정 9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처럼 내게도 예상치 못하게 들이닥쳤다. 스포츠레저부의 한상용과 중국 대표팀 유니폼 발표 취재차 떠났던 2박 3일의 여유롭던 베이징 출장은 사진기자가 된 후 처음 가보는 재난취재이자 순직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케 했던 성장통이 됐다.

베이징에서 청두(成都)행을 명받은 후 다급했던 마음과는 달리 공항 뺨치기와 막무가내 중국인과의 막 싸움 끝에 청두에 도착한 것은 14일 오후였다.

하루 먼저 도착한 상하이 진병태 특파원 선배는 현장에서 악전고투 중이라 홍콩에서 기내식까지 먹으며 5시간을 버티고도 이륙 못했던 정주호 선배와 일단 미엔주(綿竹)시의 피해지역으로 향했다. 3시간의 비 포장길을 달려 도착한 현장은 유령도시였다. 생존자들은 소화전을 부수어 물을 마시고 수십명이 깔려 있다는 폐허는 손도 못 대는 상황. 하지만 현지 도착 1보를 마감기 위해, 도와달라는 어느 할머니의 절박한 요청과 매몰된 아내의 곁을 떠나지 못하던 한 남자의 울음을 뒤로 한 채 숙소로 향했다.

자정이 넘어 한자리에 모인 3명의 연합뉴스 대지진 취재팀은 지진피해 충격을 뒤로하고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사형으로 뻗은 반경 500km의 피해지역은 아득하기만 했다. 더욱이 특파원 선배들조차 현지의 심한 사

투리로 어려움을 겪는 의사 소통 문제는 머리가 아팠다. 취재일정을 정리한 후 새벽녘에 잠든 우리에게 다가온 첫 여진은 돌이켜보건데 앞으로의 고난과 비교하면 차라리 안마의자의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산너머 뚝발”

도착 이틀째 4여 시간의 차량이동과 행군으로 도착한 붕괴위험 속 쓰핑푸 댐은 눈앞의 엑소더스였다. 목숨을 걸고 9여 시간을 걸어 탈출한 생존자들과 살기 위해 200여 미터의 가파른 댐을 줄지어 오르는 피난민들 간간이 다가오는 여진의 공포와 곧 무너질 것 같은 댐 붕괴의 위험은 온몸을 긴장감으로 마비시켰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헬기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수천 명의 군인들은 중군취재의 착각을 일으켰다. 정신없는 2시간의 현장취재를 마치고 위성전송을 시도했지만 신호만 잡힐 뿐 마감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흘러가는 초침소리가 귓가에 울리며 정신은 아득해져 갔다. 답답한 마음에 지나가던 로이터 기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가 피해지역은 군용위성통신과 각국의 외신 기자가 가져온 위성단말기로 트래픽이 심하다고 했다. 결국 다시 행군과 차량이동으로 현장을 2시간여 벗어난 후초판 마감의 끝자락인 오후 5시경 전송을 끝낼 수 있었다.

기본적인 마감을 끝내고 200여 명이 사망한 인근의 중학교로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피해지역들이 워낙 방대하게 흩어져 있어 최소 하루 두 곳 이상을 돌아보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였다. 렌즈에 비친 중학교 피해현장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매달린 칠판만이 학교임을 알려줄 뿐 예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수백 명의 마을주민들은 눈물마저 말라버린 표정으로 구조작업을 명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친구를 잃은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에 셔터를 누르는 손끝은 끝없는 망설임만 되풀이했다.



김현태 사진부

우여곡절과 아쉬움이 많이 남은 지진 취재의 마지막 밤, 타사 기자들과 청두(成都) 시내 한국식당에 모여 늦은 저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뛰어든 식당종업원은 우리에게 CCTV에서 20일 새벽 강도 7 규모의 강한 여진이 오니 모두 건물에서 피하라는 청천벽력을 전했다. 순간 아득해지는 머리와 함께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로 빠르게 흩어졌다. 그러나 거리는 이미 대피 나온 수십만명의 시민들로 아수라장이었고 택시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태우고 청두(成都)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강도 7 여진 ‘청천벽력’

취재하며 배운 짧은 중국어로 30여 분을 걸어 숙소로 돌아와 왕복 1200km 거리의 칭촨 취재로 흥미한 정주호 선배와 동영상 마감에 정신이 없는 베이징 홍제성 선배를 이끌고 위성전화, 노트북, 카메라만 챙긴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 숙소를 벗어나기 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던 취재팀은 노숙하는 수십만 명의 청두(成都)시민 틈에서 지진발생시 취할 행동과 피난루트를 그리며 노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수면부족과 극성을 띠는 모기떼에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새벽 4시경 숙소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정 선배, 그래도 마지막을 선배와 함께 해 다행입니다”

“나도 그래”

현장에서 고생했던 상하이 진병태 선배와, 홍콩정주호 선배, 끝까지 홀로 남아 고생했던 베이징 홍제성 선배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취재팀을 많이 걱정해주시고 응원 해주신 선후배분들에게 감사함과 쓰촨(四川) 대지진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험지 취재 언제까지 ‘무방비’로 내몰건가

중국 대륙을 뒤흔든 쓰촨 대지진 참사 현장에 진병태 상하이 특파원, 홍제성 베이징 특파원, 정주호 홍콩특파원, 김현태 사진부 기자 등 4명이 파견됐다. 그동안 우리 사우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중동 분쟁 등을 비롯해 술한 위험지역 취재에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뒤늦게 ‘사후약방문’격으로 논의되는 방안이 있다. 바로 위험지역 취재 개선방안이다.

작년 아프간 인질 사태 당시 국제뉴스부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 시안은 무관심 속에 묻혀있었다. 이번

에도 쓰촨 지진 취재를 계기로 다시 논의 선상에 올랐지만 언제 또 그랬느냐는 듯 창고 속으로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노조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반드시 위험지역 취재 개선방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국제뉴스부에서 마련한 시안과 타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위험지역은 전쟁, 폭동, 지진, 방사능유출, 인질사건, 자연재해 등으로 나뉘 1-3급으로 구분하고 업무수행 결정은 타당한 목적에 따라 수행자의 의사를 존중해 파견한다. 위험지 출장은 기본적으로 3주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안전을 위해 방독면, 방탄조끼 등 재해 방지 장구를 제공하고 여행자보험 등을 제공한다.

현지사정에 정통한 안내자를 확보토록 하고 안전지역 확보, 탈출 등을 위한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험지취재 매뉴얼을 제작, 전사원에 배포한다. 험지 업무수행시 사고에 대비해 1인당 2억원의 보험금을 확보하고 후유장애시 특종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국내 타사의 경우도 험지 취재에 대한 보상 대비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SBS가 위험지역 파견 보상비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연합뉴스는 험지취재에서 국내 모든 언론사를 리드해왔던 전통을 감안, 국내 언론사 중 가장 확실한 보상 대비책을 세워야 함이 자명하다.